

## 20대 총선과 경제담론 - 대중의 분노와 희망의 경제담론

김정훈 연구위원(사회학박사)

### < 요약 >

- ◎ 20대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것은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과 50대의 변심 때문이었음. 이는 분노투표와 세대투표가 중요한 동인임을 의미함.
- ◎ 불평등의 심화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분노투표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망적 분노투표가 아니라 회고적 분노투표가 나타남.
- ◎ 회고적이라는 의미는 특정 당이 더 잘해서가 아니라 더 못해서 심판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성격의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이 최대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대안이 부재하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3당 구도 및 대선전망은 대단히 유동적임.
- ◎ 20대 총선 결과로 볼 때, 19대 대선에서는 2030세대의 투표율은 더 오를 것이고, 50대는 캐스팅보트를 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투표참여운동을 넘어서 2030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50대의 불만을 더민주에 대한 지지로 변화, 고착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경제정당' 브랜드를 강화하고 희망의 경제담론을 구축해야 함.
- ◎ 19대 대선 역시 분노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회고적 분노투표를 전망적 분노투표로 전환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와 진보 대립을 넘어 시대적 요구인 불평등 해소, 안전한 생활, 그리고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노선, '제4의 길'을 제시해야 함.
- ◎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2030세대의 폭발적 참여를 통해 50대를 견인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더민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과 이길 수 있다는 '더민주필승론'을 확산시켜야 하며, 불리한 언론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온라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0대 총선의 성격>

□ 20대 총선 결과는 더민주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함.

○ 20대 총선은 예상치 못한 승리였음.

- 20대 총선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를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받은 결과는 각 당의 능력과 무관함.
- 20대 총선은 어느 당이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당이 더 못했느냐의 경쟁이었음. 따라서 한 일이 없는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반사이익을 얻음.

○ 19대 대선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름.

- 승리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선거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함. 따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 역시 예측할 수 없음.
-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는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 및 지지철회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실망이 새누리당에 대한 근본적 거부인지, 아니면 선거시기의 계파갈등에 대한 일시적인 실망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임.
- 국민의당의 존재는 더민주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선에서 3자 구도 가능성은 정권교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시대에 접어들었고,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 및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 ‘포켓몬 고’ 현상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적 변동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동, 즉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역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음.
- 세계 및 사람의 근본적 변화를 직시하고, 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만이 정국을 주도하는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20대 총선의 키워드는 회고적 분노투표와 세대투표임.

○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이유는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과 50대의 변심 때문임.

-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20대는 약 10%, 30대는 약 5% 상승, 50대 투표율은 19대에 비해 1.6% 떨어졌고, 60대 이상은 약 3% 올라감.
-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50대의 변화가 두드러짐. 18대 대선, 여 62.5%, 야 37.4%에서 39.9% 대 53.7%로 역전, 야권은 50대에서 16.3%를 더 얻었고, 여권은 22.6%를 잃음.
- 야권지지성향인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여권지지성향이 높았던 50대의 여권지지 철회가 이번 선거결과를 만드는데 결정적이었음.

○ 야권의 승리가 더민주의 승리는 아님.

- 3위의 정당득표, 특히 주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완패는 많은 과제를 남김.
- 여야 대립구도로만 볼 때는 압도적인 승리이고 이는 대선에 파란불이 켜졌음을 의미하지만, 야권지지가 분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야권지지 모두를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회고적 분노투표의 핵심 동인은 경제적 불만임.

○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과 50대의 변심을 관통하는 현상은 분노투표임.

- 분노투표(angry voter)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평등 심화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핵심적인 동력임.
-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라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더민주에 대한 차별적 책임추궁이 투표로 표현되었고, 국민의 당은 이러한 분노투표의 최대의 수혜자임.
- 야권성향이 강한 2040세대는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야권에 대한 몰표로 표현함.
- 여권성향이 강한 50대의 경우 경제적 불만에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실망과 새누리당의 오만에 대한 불만이 겹쳐져서 표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분노투표의 성격이 회고적이라는 사실은 현행 3당 체제가 불안정함을 의미함.

- 미래세력 혹은 대안에 대해 투표했다기 보다는 기성 정치권을 심판하는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회고적 성격을 가짐.
- 지역은 더민주,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나타난 전략적 분할투표경향은 유권자들이 ‘심판은 했지만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줌.
-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회고적 분노투표는 현재 유권자와 정당간의 일체감이 낮고 이번 선거의 선택이 일회적일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지 및 3당 구조는 대단히 불안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선거에서도 분노투표의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회고적 성격을 전망적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더민주가 희망적 미래세력 혹은 신뢰받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임.

□ 세대투표의 지속

○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세대투표 양상은 이번 선거에서도 지속되었음.

- 2040세대에 머무르던 야권지지경향이 50대 까지 확대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임.
- 지역감정이 약화된 것은 세대투표경향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영남에서조차도 세대투표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1) 영남에서의 세대별 지지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영남	야권	67.1	70.3	58.4	38.1	19.6
	새누리	24.7	23.2	34.8	55.3	75.2

자료) 방송3사 출구조사

- 여권의 안보몰이에도 불구하고 이념대립(종북몰이)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 이는 한편으로 경제문제와 정부의 무능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북몰이가 50대 이상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세대투표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평등심화 및 정부의 무능과 함께 불통, 독선의 이미지

때문임.

- 40대 이하 세대들은 그 이후 세대들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세대, 즉 이들은 민주화 이후 세대로 민주주의 혹은 소통을 체화한 세대인 동시에 1990년대에 일어나 문화변동을 경험해 탈권위주의, 개성,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세대임.
- 이들에게 현 정부는 경제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무능한 이미지인 동시에 낡은 권위주의, 국가주의 이미지를 가진 쿨하지 못한 세력임.
- 갤럽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정책, 소통미흡, 독선·독단이 항상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60대 이상이 박근혜 혹은 지역과 정서적 일체감을 갖고 있다면 50대 이하 세대들은 이러한 일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임. 이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50대의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임.

### <19대 대선에의 함의>

□ 2030세대의 투표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됨.

-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1987년 민주화 이후 2010년 전까지는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 세대투표경향이 나타나면서 투표율이 상승하였고, 투표율 상승은 젊은 층이 이끌고 있음.
  -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18대 32.9%, 19대 45.4%, 20대 55.3%로, 20대 후반은 24.2%, 37.9%, 49.8%로 극적인 상승을 보여줌, 이에 비해 5060세대의 투표율 변화는 크지 않음.
- 2030세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5060세대의 투표율이 거의 최고점에 이른 반면, 야권지지성향의 2030세대의 투표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2030세대 투표율 1% 상승은 이번 선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1.4만표의 야권표 증가를 의미함.
  - 이 세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참여운동을 넘어서, 이들의 열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50대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짐.

- 이번 선거는 50대가 지지성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최근 치러진 중요 선거들에서 50대는 여당지지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지지로 변함. 이는 향후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50대는 전체유권자의 19.8%를 차지하여 40대(2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투표율이 높아 투표자 중에서는 2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50대는 60대 이상 세대와는 다른 세대적 특징을 갖고 있음.
  - 현재의 50대는 1957년에서 66년생임. 대체로 베이비 붐 세대이며, 유신말기 및 5공화국 시기에 20대를 보낸 세대임.
  - 현재의 50대는 1987년 민주화에 직접 참여했거나 넥타이부대로 민주화를 지지한 세대임. 특히 50대 초반은 역사상 최초로 세대투표 양상을 보였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지지의

핵심이었던 당시 2030세대의 일원이었음.

- 이러한 세대적 경험(동기집단효과)으로 인해, 50대는 60대 이상세대들과 달리 박정희 향수를 훨씬 덜 갖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여권과 정서적 일치감이 덜함.
-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 야권에 대한 선택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50대의 중요성=중도'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야 함.
  - 현재 20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에코세대, 즉 50대와 20대는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고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 예를 들어 20대의 등록금 문제는 곧 가장인 50대의 문제이고, 일자리 문제는 20대와 50대 모두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임.
  - 레이코프의 이중개념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안에 평균적인 중도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변화하는 현실 및 한국적 상황에서 중도의 실체는 매우 불명확함.
  - 핵심문제인 경제문제에 있어 저성장 시대에 불평등해소를 통한 성장이외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음.
  - 2030세대와 4050세대는 전자의 세대가 혼밥, 혼술에서 보여주듯이 보다 주관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60대 이상 세대와 비교하면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성격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합리적, 실용적 성격에 주의한다면 이들은 결국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력에게 투표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은 우리 당이 제시하는 더불어 성장밖에 없음.

□ 경제담론이 강화되어야 함.

- 이번 선거는 경제가 결정지은 선거임.
  - 이번 선거가 회고적 분노투표였다는 사실의 핵심은 기성정치권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임.
  - 더민주의 '경제심판론'은 희망을 조직하지는 못했지만 분노에 편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선거전략이었음.
  - 경제심판론은 한국적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인 대북문제 혹은 안보문제를 우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소모적인 종북논쟁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함.
-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 불평등문제, 일자리문제, 빈곤의 문제는 전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이고, 대중들은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유능한 경제정당' 브랜드는 이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한 것으로 이 브랜드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대안적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함.
  -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대북프레임을 구성할 것임.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대북프레임을 경제프레임으로 전환하고, 경제프레임을 중심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해야 함.
  -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의 경제담론을 만들어야 함.

## <더민주주의 과제: 새로운 노선, 제 4의 길>

□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제 4의 길을 개척해야 함.

○ 산업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길, 즉 제 4의 길을 개척해야 함.

- 제 4의 길은 보수와 진보사이의 제3의 길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노선이라는 의미임.
-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변동과 네트워킹된 개인주의라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시대에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라는 산업사회의 분류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실천이 요구됨.
-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87년 체제가 규정한 보수와 진보의 구별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음.
- 큰국가/작은국가, 국가주도/시장주도라는 이분법을 버리고 국가와 시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생산적이고 정의로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함.
- 1950년대식의 낡은 냉전주의적 사고를 넘어서서 북한에 대한 관점을 이념에서 실리로,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해야 함.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 경제 교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로 인식되고 있음.

○ 보수와 진보를 넘어 소통, 다양성, 정의를 강조하는 시대담론을 더민주가 주도해야함.

-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이 연결된 네트워킹된 개인주의 시대의 핵심적인 문화적 가치는 다양성, 개성, 자기실현임.
- 샌더스 돌풍의 핵심은 한편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민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실현을 위해 네트워킹된 밀레니얼 세대들임.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위 '꼰대'적 가치 및 행태로부터 탈피해야함.
- 다양성, 개성, 자기실현은 단순한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IT혁명의 주역들이 보여주듯이 혁신의 동력이 되는 가치들임.
- 혁신이 생존의 요소가 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그리고 빠른 추적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동시에 산업사회적인 연고주의, 획일주의, 권위주의적 가치 및 관행은 혁신의 장애일 뿐 아니라 감정적 거부감을 낳음.

□ 시대적 요구인 불평등 해소, 안전한 생활, 그리고 자기실현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

○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프레임이 주프레임이 되어야 함.

- 분노투표의 핵심은 불평등의 문제,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임. 우리 당은 불평등해소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더불어 성장론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 더불어 성장론은 '포용적이고 스마트한 성장'전략임. 포용적 성장이 불평등 해소를 통해 내수확대를 이루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전략이라면, 스마트 성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전략임.
-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서구의 진보적 싱크탱크 및 진보적 학자들에게 더불어 성장은 상식임. 2006년 미국 민주당의 정강정책 역시 더불어 성장을 주장하고 있음.
- 경제담론은 예상되는 여권의 중복몰이를 피해갈 수 있는 핵심 프레임임. 경제망국론과 같

은 비판담론에 더하여 더불어성장론과 같은 대안담론으로 경제프레임을 구성하여 대중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음.

- 추상적 목표보다는 “전국민의 중산층화, 혹은 중산층의 복원”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목표 및 메시지를 구축해야함.
- 이 목표를 위해 1대 99, 기득권·특권층 대 중산층·서민 프레임을 활용하고, 기득권층에게는 특권과 반칙에 대응하는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지원과 기회를 약속하는 담론을 구축해야함.
- 경제담론과 안전담론을 결합하여 대중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함.
  -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상의 불안, 즉 세월호, 메르스, 가슴기 살균제 사건, 구의역 사고, 묻지마 살인, 강남역 살인사건 등은 국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자극하고 이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이미 ‘위험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 따라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
  - 위 사건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사회적 결과물임. 따라서 더불어 성장과 안전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담론과 경제담론을 결합해 대중적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즉 안전한 성장, 혹은 성장을 촉진하는 안전일자리라는 담론을 구성해야 함.
  - 일자리 확대와 안전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영역들이 대단히 많음, 예를 들어 안전관련 일자리의 확대 및 안전일자리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자기실현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함.
  -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혁신과 창조의 원천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동력임을 인식해야 함.
  - 가로수길을 시작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서울 상권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계급들의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혁신능력을 산업 및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확보 모두에 아주 중요한 문제임.
  - 소통, 다양성, 자기실현은 야권 지지층인 2040세대의 핵심적 가치이고, 이러한 요구를 담론적, 정책적으로 표현한다면 폭발적인 대중적 참여가 나타날 것임.

□ 2030세대에서 시작된 파도를 전 세대로 확산시켜야 승리할 수 있음.

- 2030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50대를 견인해야함.
  -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선거는 2030세대의 투표율 증가와 50대의 변심으로 여소야대의 결과가 나타났음. 이는 다음 대선에서 203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가시키면서 그 물결이 50대까지 이르면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앞에서 언급했듯이 20대와 50대는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고, 2050세대는 그 이전세대 보다 합리적 세계관을 더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여권과 정서적 일체감도 대단히 적음.
  - 2050세대를 연결하는 핵심담론은 불평등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담론임.
- 전망적 분노투표로의 전환을 위해 ‘대안부재론’, ‘더민주 후보 필승론’을 확산해야 함.
  - 사드배치문제, 우병우수석문제 등으로 인해 여권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음. 앞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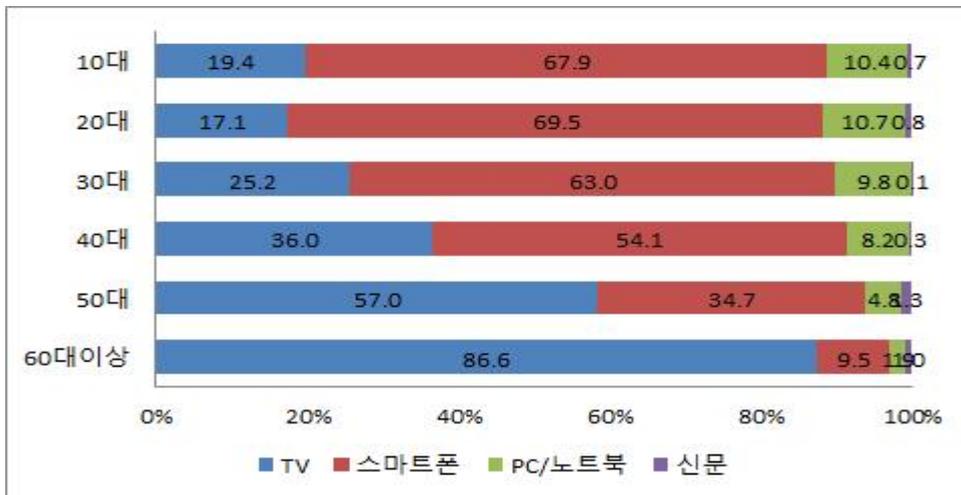
속화될 레임덕현상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에 미래가 없고 더민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을 확산시켜야 함.

- 정치불신 혹은 정치무관심의 핵심은 ‘무용론’임. 해박야 소용없다는 대중적 허무주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민주대세론’, ‘더민주필승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하고, 더민주가 승리하면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할 수 있다’는 담론을 통해 대중과 더민주 후보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확보하고, 더민주의 후보를 희망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함.

○ 적극적인 온라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그림 1)에서 나타난 매체이용율과 총선 전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대단히 유사함. 이는 매체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함을 보여줌.

그림 1)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매체(단위,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매체 이용실태조사

- 보수세력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TV를 포함한 전통적 매체의 영역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중적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는 온라인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전통적 매체의 변화를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생각됨(물론 전통적 매체도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용해야 함).
- 특히 당 및 후보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와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거나 대안적 희망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대중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팟캐스트 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 있음.

♣ 위 글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경제연구센터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